

홈 > 뉴스 > 뉴스 > 북미 | people

안중근 의사 순국 107주년 기념 ‘청소년 한국어 말하기 대회’ 다솜 한국학교 이찬서 군 대상 수상

2017년 02월 28일 (화) 17:51:43

박재익 기자 ✉ dongponews@hanmail.net

미주 안중근 의사 기념 사업회가 주최한 ‘제3회 청소년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서 캘리포니아 다솜한국학교(교장 최미영) 이찬서 군이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한국어 말하기 대회는 안중근 의사 순국 107주년을 기리고, 재외동포 청소년들에게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갖게 하는 한편 안중근 의사의 애국정신과 동양평화 사상을 알리고자 기획됐다.



▲ 대상을 수상한 이찬서 군 (사진 다솜한국학교)

이러한 취지에서 학생들은 안중근 의사의 생애, 안중근 의사의 역사관 및 애국정신, 안중근 의사의 평화 사상,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인 조 마리아 여사의 교육관 중 한 가지 주제를 선택해 3분에서 5분 분량으로 발표했다. 특히, 이찬서 군은 안중근 의사의 삶으로부터 자신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심사위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같은 학교 출신인 조유리 학생이 함께 참가해 장려상을 수상하며 다솜한국학교 관계자들을 기쁘게 했다.



▲ 이찬서 군과 조유리 양, 대회 관계자 (사진 다솜한국학교)

대회의 심사위원장을 맡은 최철순 샌프란시스코 교육원장은 심사평을 통해 “수상 여부를 떠나,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생각을 발표할 수 있는 무대 경험을 갖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재미 한인 청소년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안중근 의사의 애국정신과 평화사상을 기억하고 계승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이번 한국어 말하기 대회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평가된다.

© 재외동포신문(<http://www.dongponews.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인쇄하기 창닫기